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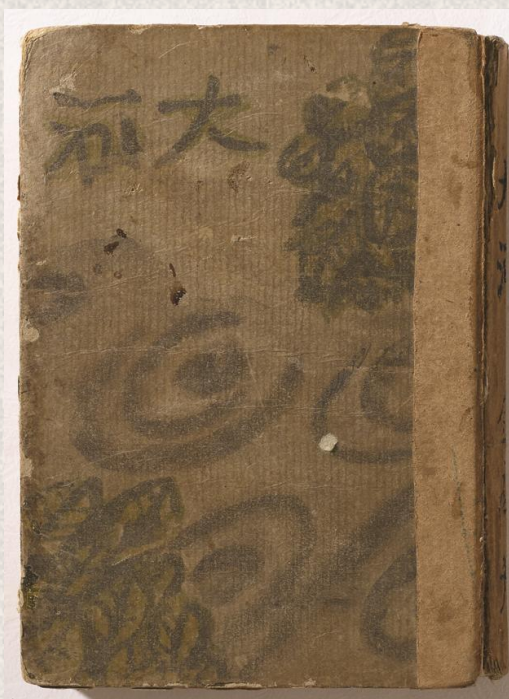
가족사연대기소설과 ‘원시’라는 시공간의 탄생, 그리고 김사량의 『낙조 (落照)』

박미라(부산대)

1. 들어가며

근대는 ‘자연 대 문화’와 ‘전통 대 근대성’이라고 하는 이중의 등식을 만들어내면서 시간을 일직선적 진보로 상상한다. 본 연구는 1940년대 전후로 발표되었던 가족사연대기소설이 개화기 조선을 ‘시원’으로 설정하면서 그러한 ‘전근대’와 ‘근대’의 단절을 표상하기 시작하는 일련의 작업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. 이러한 표상을 조선이 일본제국의 지방으로 편입되어 일본제국의 전쟁-주체로 포섭되는 과정과 함께 추진되었던 ‘근대국가체제’의 형성과의 연관성 속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.

김남천, 『대하』 제1부
1939.01.05 <인문사> 발행



2. 김남천의 풍속론과 가족사연대기소설

가족사연대기소설은 1939년부터 1941년까지 김남천, 이기영, 한설야, 김사량, 이태준 등의 작가들이 개화기를 배경으로 삼아 한 소년의 성장기를 써서 발표한 일련의 장편소설들이다.

김남천, 최재서 등 당시 문학가들은 서구의 근대가 붕괴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서구 ‘시민사회’의 서사시’라 할 수 있는 ‘로만’을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는 새로운 소설 형식으로서 가족사연대기소설을 제안하였다. ‘조선적 특수성’을 ‘과학적’으로 탐구하고 서구의 근대성이 초래한 ‘주체의 분열’을 초극할 수 있는 구체적 문학 형식이라는 것이 그 논리였다.

그러나 김남천이 ‘풍속’을 통해 사회기구의 본질 및 당대 계급 갈등의 구조를 소설로 형상화하겠다고 하였던 의도는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. ‘풍속’을 ‘모랄’에까지 높이어서 생각해보자던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, 그가 기왕 비판하였던 ‘눈에 보이는 이것저것을 두루두루 살피는 일반 공통된 징후나 현상’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. 이러한 실패는 전근대사회를 가벼운 ‘표상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간단히 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데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.



이기영, 『봄』 제1회 1940.06.11 <동아일보>

3. ‘원시’의 시공간의 탄생과 ‘반도인’

가족사연대기소설은 당시 문학가들의 논의 및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. 소년들의 근대화에 대한 맹목적 지향 및 ‘근대로의 도약’ 서사가 전근대-근대라고 하는 시간의 분절을 자명한 틀로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. 이로써 ‘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’으로 존재하던 전근대성과 근대성의 혼종성 및 착종성이 일직선적 시간의 진보로 확립되면서 조선의 근대화가 역사화(진리화)되는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.

이는 새로운 조선과 조선인, 즉 ‘반도인’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. 1938년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시행과 함께 조선이 일본제국의 ‘지방’으로 편입되어 ‘군사력’의 일부분을 담당하게 되면서 조선은 본격적인 ‘근대국가체제’의 형성이라는 시대적 과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근대국민의 한 부분으로서 새로운 정체성 형성 및 역사수립이라는 과제도 이루어진 것이다.

이러한 시대적 과제가 만들어내는 시공간의 틀은 가족사연대기소설의 구조와 닮아있다. 사회주의적 역사발전론의 내재적 논리를 따르고 있는 문학자들의 논의는 결과적으로 당시 근대화=황민화의 제국 이데올로기의 자장(磁場) 속에 포섭되어, ‘의도와 결과의 괴리’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.

4. 성장하지 않는 소년, 김사량의 『낙조』

그러나 김사량의 『낙조』는 그러한 도약을 보여주지 않는다. 전근대적 아버지의 세계가 위압감과 현실적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. 이는 다른 작품들이 전근대적 아버지의 세계를 ‘풍속’으로 그려내면서 중국에는 그 풍속을 ‘오백 년 자던 잠을 깨지 못하고 지내 자다가 죽을 것들’로 손쉽게 단절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. 그런 점에서 김사량의 『낙조』는 가족사연대기소설이라는 형식을 전유하여 오히려 ‘전통’의 존재를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.



김사량,
『낙조』 제1회
1940.02. <조광>

